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Vol.1

2022. 11. 가을호

문불여 장성

창간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 : 김인후, 기정진 등 이름난 학자들을 배출한 장성. 예로부터 “학문은 장성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여 ‘문불여장성’이라 불렀다.

- 02
기획특집
- 04
장성의 맛
- 05
장성사람들
- 06
장성소식
- 08
민선8기
- 09
의정소식
- 10
내고향이모저모
- 12
농특산물 · 나눔마당

원고
모집

수필, 기고, 시, 사진, 나의 이야기로 고향에 소식을 전하세요!

보내실 곳 : jsara@korea.kr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실 소식지 담당자 앞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장성군

발행인 · 장성군수 김한중

발행일 · 2022.11.18.

주소 ·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전화 · 061)390-7221

홈페이지 · www.jangseo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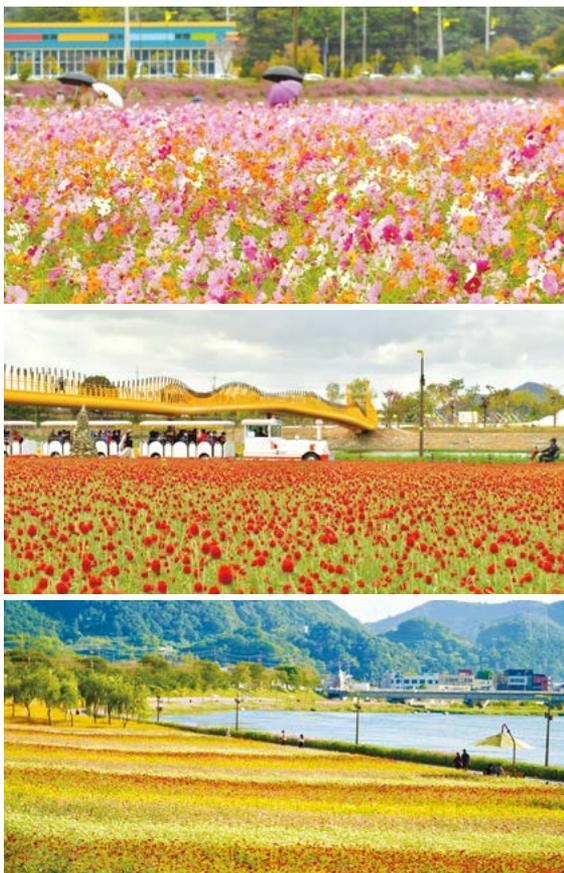


3년의 기다림...다시 시작된 설렘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꽃 축제!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장성에서도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다시 시작됐다.
어느 해보다 활기차고 생명력 넘쳤던 '황룡강 가을꽃축제'현장을 함께 찾아가 보자.

”



다채로운 가을꽃, 마음을 녹여준다

황룡강 가을꽃 축제의 핵심 요소는 바로 가을 꽃! 올해 가을꽃축제에서도 역시 다채로운 가을꽃들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 성공했다.

백일홍과 천일홍, 코스모스, 핑크몰리 등의 알록달록한 색들이 어우러져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되었다.

꽃길 중간중간에 조성된 꽃향기정원, 장성가을정원, 이야기꽃정원에서는 일명 인생샷으로 불리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던 이번 축제는 수상자전거, 어린이 놀이동산 등 체험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황룡강 가을꽃들이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들의 옥죄어있던 마음을 풀어 주었다.





함께 걸으며 힐링해봐요!

주말이었던 10월 15일 오전, 옛 공설운동장에서 ‘꽃길 걷기대회’가 열렸다. 축제장을 나선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가을꽃이 피어난 강가를 거닐며 정담을 나눴다.

용작교에 함께 올라 강을 건너니 꽃바람 이는 황룡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안산 둘레길과 황룡강 폭포도 차례로 만날 수 있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꽃도 보고, 대화도 하다 보니 금세 5km의 여정이 끝났다. 축제장에서만 머물렀으면 보지 못했을 황룡강의 숨은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아름다운 밤 풍경

“와~” 밤 하늘에 터지는 불꽃을 보며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황룡강 축제는 밤에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공원 입구의 “빛의 게이트”, ‘축령의 세계’, ‘미르의 서재’ 등이 빛을 내며 사람들을 반겨주었고, 축제장 한 가운데에 마련된 테이블에서는 향토음식을 나눠먹으며 달빛 콘서트의 신나는 음악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물 위를 화려하게 빛내주는 달모양을 한 문보트는 타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그야말로 화려한 밤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현장이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시다(있다)

장성의 명품 카페로 광주, 전북 등에서도 찾아와

두 개의 건물이 하나의 통로로 이어지는 독특한 카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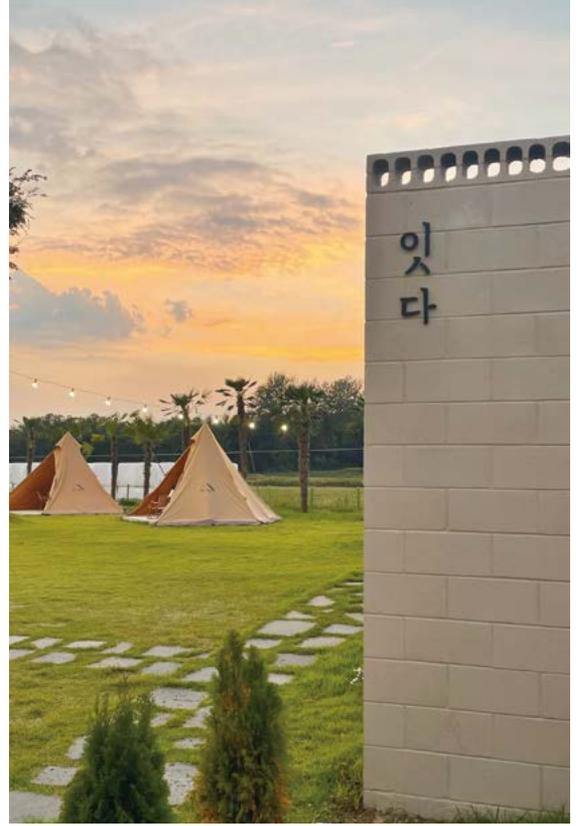
진원면 선적리 덕천마을. 승용차도 비켜 지날 수 없는 좁은 길을 지나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카페 '있다'가 있다. 좁은 길, 그리고 작은 간판은 마치 보물을 찾아내라는 숙제처럼 오히려 카페를 찾는 즐거움을 준다.

'있다'의 간판은 '이시다'로도 사용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는 뜻의 '있다'에 '이시다'의 스은 사람인(人)자로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상징한다. 한편 '있다'는 두 개의 건물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 또한 '있다'의 건물 특징이기도 하다.

카페 '있다'는 청년 귀촌인 남백현씨와 남예슬씨 남매가 운영하고 있는데 남백현씨는 제과·제빵을 담당하고, 남예슬씨는 커피 등 카페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

2천여 평의 대지에 심플하고 아늑한 실내는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카페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주변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루프탑은 계절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며 눈이 내릴 때는 그 운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 준다.

주소 · 전남 장성군 진원면 덕천길 37 전화 · 0507-1363-7994



보약 같은 밥상, '청자연'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외할머니 집밥

'신토불이 음식 연구가'로 알려진 대표 박금숙씨



2005년 광주에서 장성으로 귀촌한 박금숙씨는 한옥팬션을 운영하면서 텃밭에 푸성귀를 심어 팬션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시골밥상을 차려 주었다. 고구마, 옥수수, 당근, 쥐눈이콩 등의 식재료는 이웃 주민들이 재배하여 믿을 수 있는 것들만 사용하였고, 소박한 시골밥상은 도시민들에게 생애 최고의 밥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미 '신토불이 음식 연구가'로 이름이 알려진 박금숙씨는 2012년 남도음식큰잔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박씨의 전통음식은 광주 인근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청자연은 제철에 나는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원칙으로 삼으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만을 고집한다. 정갈하고 담백한 청자연의 자연밥상은 '밥이 보약이다'는 옛사람들의 말을 실현하듯 아픈 사람의 속도 편안하게 해준다.

하루 50~60여 명의 예약된 손님만 식사를 제공하는 까닭에 가끔 헛걸음을 하고 가는 분들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하는 박금숙씨는 '청자연' 도시락을 만들어 단체주문도 받고 있다.

청자연의 메뉴는 '자연밥상'과 '떡갈비 자연밥상' 두 가지로 셀프바에는 반찬은 물론 후식 과일과 식혜 등도 구비되어 있다.

주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구석길 53-2 전화 · 061-394-9909



수몰지역 덕재리, 전남대학교에서 숨쉬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강의동 '덕재홀'
 故김상준 선생이 수몰 지역이 된 고향 덕재리를 마음 깊이 그리워하며 기증하였다고 한다.
 그와 덕재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 김형록 교수에게 들어보았다.



덕재 김상준 (1932~2007)

선친께서 덕재홀을 기증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선친 김상준께서는 현재 수몰지역으로 북하면에 소재되어 있는 덕재리에서 출생하여 북상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장성댁으로 고향이 수몰되어 실향민으로 지내시던 선친은 고향을 너무도 그리워하셔서 생전에 본인이 아호를 '덕재'라 칭하셨습니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생전에도 북상초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오랫동안 기증하셨습니다. 또한 작고하신 후, 본인이 졸업하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산을 기증하시어 덕재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덕재홀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강의와 학술발표, 연구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을 마감하실 때에도 고향이 보이는 곳에 묻히고자 하시며, 한시도 고향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 덕재리에 대한 선친의 남다른 사랑이 느껴집니다. 평소 김상준 선생님은 덕재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선친께서는 본인이 자란 고향 덕재리에 대해 너무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덕재리는 자연환경이 깨끗하여 산천이 수려하고, 물 맑은 동네라 하시면서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북상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학교에 가려면 마을 앞 실개울을 붓짐을 머리에 이고 헤엄쳐 건너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고향을 늘 찾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 덕재리 개울에서 다들기도 잡고, 뒷마루에서 노래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으셨고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늘 고향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꺾이지 버티시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덕재홀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말 그대로 덕재리는 호칭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장성군 덕재리'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늘 숨쉬고 있는 것이지요.



덕재리 마을전경 (1975년)

끝으로, 장성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장성은 공기 좋고, 산천수목이 수려한 대한민국에서 으뜸인 청정지역입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고, 특히 수몰된 실향민들에게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우회 소식

2022년 11월 6일



올 가을, 향우님들이 고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정도 쌓고 고향 소식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셨습니다.
 매년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는 향우님들, 감사합니다.

· 재경북상면 향우회 ·



· 재경삼서면 향우회 ·



내고향 장성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기부자·지역생산자 모두가 좋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서원 철폐령에도 살아남아 당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을 품은 곳. 알록달록 애기단풍이 화려한 춤을 추는 백양사가
 있는 곳. 우리의 고향 장성.
 이토록 아름답고 추억이 깃든 고향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지역에 활력
 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 발전에
 소중한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합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이 아닌, 장성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개인만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로 이뤄집니다.
	기부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부금 사용처	장성군 발전의 동력으로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662 2281 824 2419"> 지역공동체 활성화 </div> <div data-bbox="833 2281 1043 2419"> 고향의 문화·예술 시설 확충 </div> <div data-bbox="1052 2281 1214 2419">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div> </div> 



장성과 광주에서 만나는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만나요!



요즘처럼 식재료의 물가가 높은 때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성 로컬푸드직매장이다. 그래서인지 남면과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시설이다.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되어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를 통한 수익 증가를,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석이조가 된다.

2017년 개장한 농협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에 이어 올해 6월,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했다. 첨단 3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으로,

· 농협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 장성군 진원면 하서대로 333-2 ☎ 061) 394-7500
·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 ☎ 062) 974-9260



12만 명 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1층은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운영 중이며, 2층에는 소비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육장과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이번 주, 아이들과 함께 신선한 농산물로 쿠킹클래스도 즐기고,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해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성의 주인은 군민” 장성군민의 날과 노인의 날 기념식



10월 4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기념식을 다시 개최하면서 군민·향우와 함께하는 벅차고 감동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장성군민과 향우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5회 장성군민의 날’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군민의 상 시상식에서는 정춘자 전 장성예총회장, 반강진 대한노인회 장성군 지회장, 강용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인의 날을 기념한 시상도 있었다.

모범노인 11명과 노인복지 기여자 11명을 선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장성군민의 날을 맞이해 특별히 준비한 미디어 대북 퍼포먼스가 열려 열띤 호응을 얻었다.

노인회관 준공,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봐요!



10월 25일, 노인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기존 장성군 노인회관은 황룡강 건너편 문향고등학교 근처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준공된 노인회관은 읍시가지 옛 전남제재소 자리에 세워졌다. 노인 이용 시설인 만큼, 설계·준공 과정에서부터 안전과 편의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노인회관은 2층 건물로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 있다. 고령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를 위해 꾸준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노인회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90 ☎ 061)392-1042



“화합과 변화로 장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민선8기 장성군 김한중 군수

지난 10월, 김한중 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한중 군수는 지난 100일간의 군정을 돌아보며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장성군민과 공직자의 행복이 미래 성공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화합과 변화를 통해 장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민선 8기. 취임 100일 동안의 변화와 주요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자.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 모든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천만 관광시대 기반구축 본격화

- 장성 관광활성화 포럼 개최
- 3년만에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개최
- 필암서원 명품 국악공연, 남도 명인·명창 국악향연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국가신성장산업 본격 유치 추진

-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
-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 및 기반시설 지원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

-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상황 대응 체계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 일수·수당 확대(증10.8만원)
-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기회 확대
- 노인회관 준공

앞서가는 일류 농업정책

-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축
-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쇼핑몰 ‘장성몰’ 구축
-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육성
- 잔디특화공원 조성 추진

문불여장성 미래인재육성

- 대학생 주거비 지원(연360만원) 및 등록금 실납부액지원

찾아가는 현장 행정 실천

- 군민 생활민원 읍면 직접해결 예산 대폭 확대
- 13개 주요사업 현장방문
- 11개 읍면 이장회의 참석을 통한 군민의견 청취
- 진원면 군부대 포사격 파편 피해 민가 방문





(왼쪽부터) 차상현 의원, 나철원 의원, 오원석 의원, 고재진 의원, 최미화 의원, 심민섭 의원, 김연수 의원, 서춘경 의원

군민이 주인되는
자치의정

소통하고 신뢰받는
'장성군의회'

제9대 장성군의회는 지난 7월 4일 개원식을 갖고 '군민이 주인되는 자치의정' '소통하고 신뢰받는 장성군의회'라는 의정목표로 힘차게 출발했다.

장성군의회 의정활동 주요 내용

-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제341회~제345회)
-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군정질문, 조례안 처리 등

제9대 장성군의회는 7월 개원 이후 제34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제341회~제345회)을 통해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군정질문, 제2회~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다.

더불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타 지역 주요 시책사업 및 우수사례 현장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다음 제346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본예산,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



군의회는 9월 16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도 선제적 시행 및 공공비축 매입방식으로 변경 ▲수매대란을 막기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및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쌀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관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방문



장성군의회가 지난 10월 17일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부지 내 공동(空洞) 발생과 관련하여 방문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지반보강공사 등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말뚝기초 재하시험 진행과정을 보고받았다.



장성읍

우리 동네 사업,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요!

장성읍 주민자치회가 9월 26일 장성읍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장성읍 주민이 직접 내년에 시행할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날 결정된 사업은 사업 실행 가능성 등 검토를 통해 2023년에 장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진원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진원면 복지기동대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집을 찾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행하며 어려운 이웃돕기 실천에 나섰다. 복지기동대 회원 10여 명은 지역 내 모자가정을 방문해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는 곰팡이 핀 벽지를 교체하는 등 주택 수리를 진행하였다.



남면

양정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양정장학회가 9월 22일, 남면과 진원면 거주 대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와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양정장학회 설립자인 공양진 이사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 장성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추후 장성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화면

안강박사, 3년 만의 사랑의 인술

10월 8일, 통증전문가 안강박사가 3년 만에 만성통증으로 고통받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안강 박사는 지난 2011년부터 장성군을 찾아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박사는 “편찮으신 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어르신들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삼서면

온마을축제로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 실현

9월 14일, '삼서 온마을교육공동체'가 삼서중학교에서 「제6회 온마을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성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삼서면과 청년회가 지원하여 진정한 공동체 가치 실현 및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의 해맑은 미소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지친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삼계면

사창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사창초등학교가 2020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념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10월 22일, 고성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탑 제막식,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황룡면



황룡면 청년회 11월 효도관광 재개

11월 8일, 황룡면 청년회가 지역 어르신들 180여 명과 함께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된 여행으로 여수 오동도에서 유람선과 케이블카를 타며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다. 한편, 황룡면 청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효도관광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금액 500만원을 장성장학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서삼면



‘역대 서삼면장 초청 간담회’ 개최

9월 23일, 서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삼면장으로 재직하신 12명의 역대 면장들과 ‘역대 서삼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17대 김관중 면장을 비롯한 역대 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북일면



새마을부녀회,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고추장

북일면 새마을부녀회가 10월 20일, 고추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관내 저소득층, 홀로 사는 어르신 50여 분께 직접 담근 고추장을 전달했다. 북일면 새마을부녀회는 2015년부터 고추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북이면



2022 사거리 전통시장 페스티벌!

10월 11일과 16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거리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2022년 전통시장 페스티벌」이 열렸다. 품바, 난타 공연을 비롯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북하면



‘백양골 주민정원사’ 정원수 전정작업 재능 기부

백양골 주민정원사는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정원수의 나무 전정과 아름다운 화단 가꾸기에 재능을 기부했다. 주민정원사는 매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자원봉사를 자칭한 북하면 주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정원사의 노력에 주민들과 관광객의 호응도 높다.



장성의 맛깔나는 김치를 맛보세요!



찬바람이 슬며시 불어오는 걸 보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 장성에서도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젓갈과 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장성의 김치를 식탁 위에 올려보는 건 어떠세요?



더나은푸드

어떤 육류도 맛있게 만드는 맛 좋은 김치. 텁텁하지 않고 아삭하고 시원한 김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특별한 양념을 사용하는 더나은푸드의 맛 좋은 김치를 드셔보세요.

문의 070-4808-2496
홈페이지 smartstore.naver.com/tasty_kimchi



북하특품사업단

전통의 맛을 유지하며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제품. 인공첨가제를 넣지 않는 자연주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위생적인 공정으로 품질을 지킨 젓갈, 김치를 맛보세요.

문의 061)392-6331
홈페이지 www.bukha.co.kr



산들래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를 밥상 위에 올리고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푸드맘 김치입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절임배추·김장김치 예약 판매합니다.

문의 061)392-2298
홈페이지 www.sandeulraefood.co.kr



새벽팜

“김치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것처럼 철저한 위생과 제작공정을 거쳐 만들어져 온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새벽김치입니다.

문의 061)888-7110
홈페이지 www.saebyeokfarm.com



옐로우푸드

신선함이 살아 있는 김치.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여 손맛 나는 김치만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건강한 김치의 참맛을 꼭지김치로 만나 보세요.

문의 061)393-0688
홈페이지 kkokgikimchi.co.kr

· (재)장성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

후원해주신 장학금은 우리 장성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큰 디딤돌이 됩니다. 기탁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기탁자	금액(원)	기탁자	금액(원)
정용연님 (수원시,매월50천원)	450,000	이대원님 (장성읍)	1,000,000
이복용님 (북하면)	1,100,000	유성록님 (담양군)	1,000,000
익명	1,000,000	익명	1,000,000
황룡면 청년회	5,000,000	이원형님 (삼서면)	1,000,000
임태진님 (장성읍 청년회장)	3,000,000	장성군 골프협회	1,000,000
농협장성군연합 공조회	6,000,000	장성고 총동문회	1,000,000
문영수님 (진원면)	2,500,000	방기원님 (북하면)	2,000,000
이현순님 (진원면)	2,500,000	육승열님 (장성읍)	2,000,000
원불교 장성교당	1,000,000		

· 이웃사랑 기탁 ·

장성의 발전과 이웃을 위해 소중한 금액과 물품을 기탁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주)한국쓰리축
(금 5,000,000원)



오로라이노베이션
(금 600,000원 상당 KF94 대마 마스크)



푸른솔골프클럽
(동화기업 주식회사)
(금 10,000,000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비나눔 장학금
(금 8,103,300원)



탐솔라 그룹
(금 2,000만원 상당 천일염 1,000포)
(금 1억8300만원 상당 마스크 734,000매)